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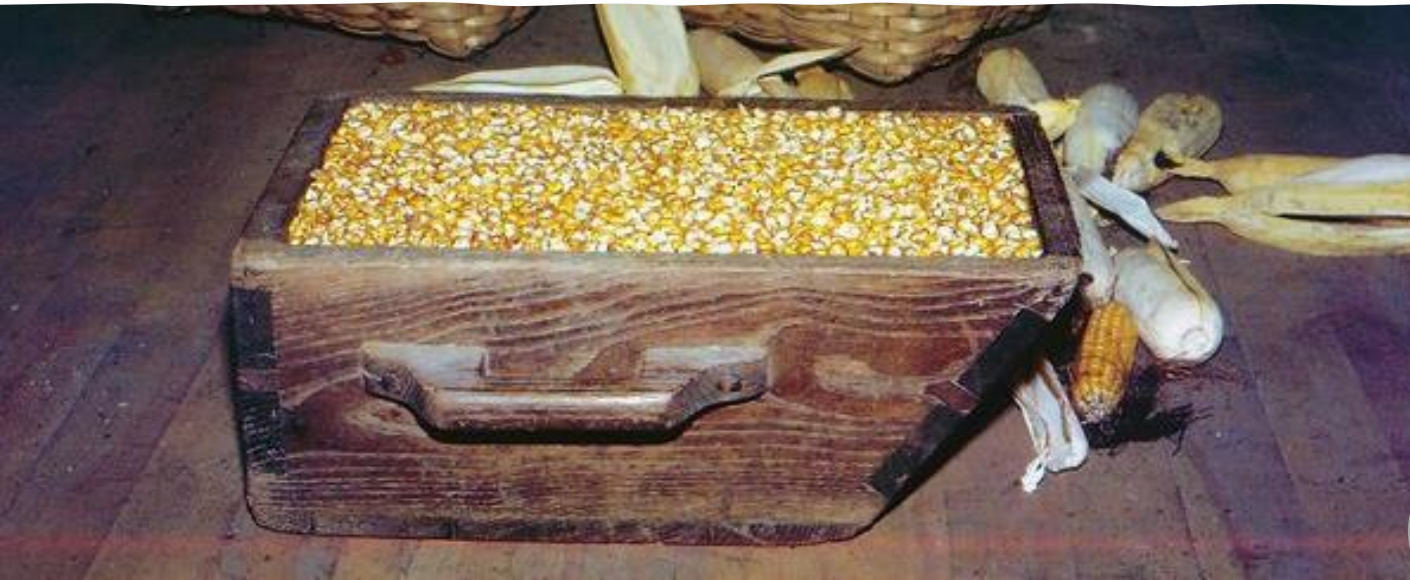


비유들

4과 2024년 7월 27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 4:24, 25)



비유는 실제로 있었거나 있었을 법한 지어낸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 속의 비슷한 점들과 비교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나 올바른 선택을 배우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를 들려 주셨습니다(막 4:34).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상 생활의 소재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집에 와서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 비유가 필요한 이유. 막 4:10-12.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막 4:1-9.

➤ 비유를 설명하심. 막 4:13-20.

● 다른 비유들:

➤ 등불과 저울. 막 4:21-25.

➤ 씨앗의 성장과 겨자씨

비유가 필요한 이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막 4:12)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주로 하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막 1:14-15). 그분은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막 4:30).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나 뜻밖입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막 4:12).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사 6:9-10)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쉽고 단순하게 들려주어도 이해하고 변화되고 구원받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막 4:2-3)

- 며칠만에 죽음 (새들이 먹음) (막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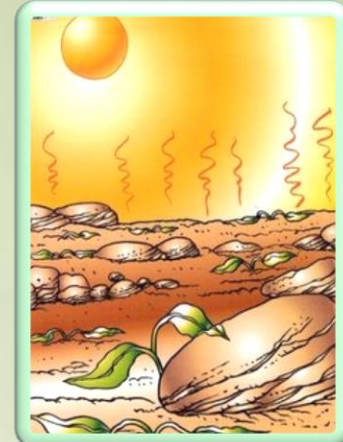
길 가에
떨어진
씨앗



- 몇주만에 죽음 (막 4:5-6)



돌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 몇달만에 죽음 (막 4:7)

- 수확할 시기에 열매를 맺음 (막 4:8)

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씨앗들을 뿌렸지만, 씨앗이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씨앗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씨앗을 받은 후 각자의 태도가 그 씨앗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비유를 설명하심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막 4:14)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사단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데려감 (막 4:15)

길 가에
떨어진
씨앗

- 말씀을 듣고 좋아하지만, 시련을 견디지 못함 (막 4:16-17)

돌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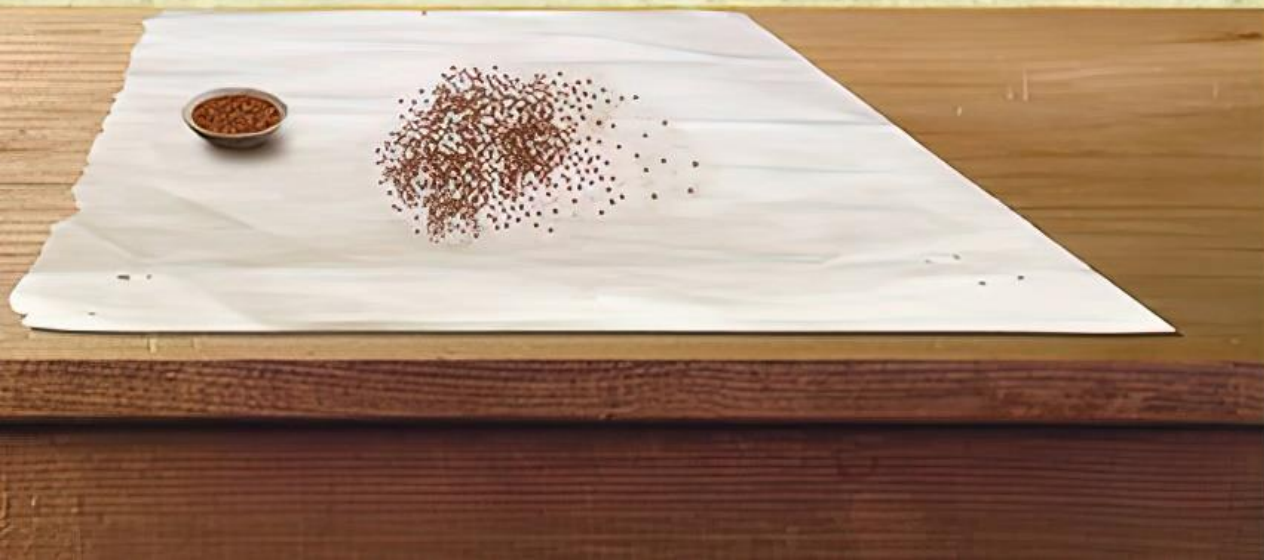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 시련을 견뎌내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열매 맺음 (막 4:20)

-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안일함에 빠짐 (막 4:18-19)

여러분은 이 네 장소 중에 어떤 땅입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른 비유들



등불과 저울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막 4:21)

등불의 비유를 들으며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밤에) 등불위에 뚜껑을 덮을까요?, 아니요!, 보통 이런 곳에 두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조금씩 조금씩 알려 주셔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막 4:22).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등불을 켜올 때 “들을 귀 있는 자들”(막 4:23)은 그 비유를 기억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막 4:24).

(그 당시) 도시의 거리에서 상인들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양을 재기위해 규격이 정해진 그릇들을 사용했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조금 더 주었습니다. 진리를 간절히 원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덤으로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를 거절한다면 이미 갖고 있는 진리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막 4:25).

씨앗의 성장과 겨자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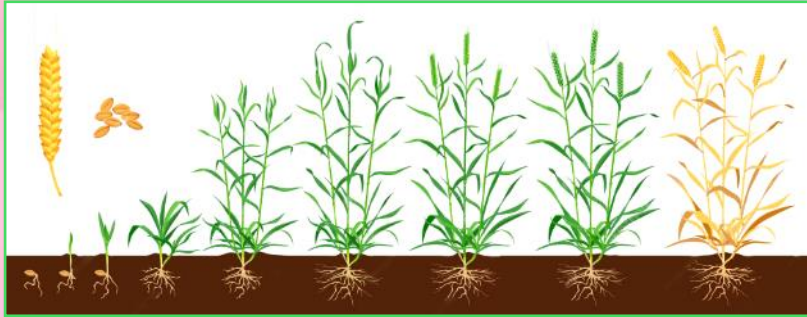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막 4:26)

예수님은 곡식의 성장 과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막 4:28).

1 싹이 남

2 이삭

3 곡식



하나님께서서 곡식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4:27).

이 과정은 곡식이 좋은 밭, 즉 믿는 사람의 마음에 심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합니다 (막 4:29; 마 13:39).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막 4:31)

하늘 나라는 조그만 겨자씨앗의 (성장과정)과 같습니다(막 4:30-31).

겨자 씨앗을 뿌린 후 50일이 지나면 30~40cm까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7미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성장해서 전 세계에 퍼졌고 가장 많은 신자들을 가진 종교가 되었습니다.

“비유와 비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설명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과 이야기를 사용하셨고 쉬운 단어들로 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삶, 경험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보는 자연의 사물들과 진리를 연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의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 진리를 가장 감동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물들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선생님께서 그 사물들과 연결하셨던 진리를 기억해냈습니다.

엘렌 화잇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236)